

李 “항만·공항·철도 연결해 동남권 해양경제권 완성할 것”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 참석
“국가 생존 좌우하는 핵심 영역
물류 인프라 확충, 관광벨트 조성
YS 꿈꿨던 해양강국 도약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해양수산대학교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이 돼 자유로운 항행과 열린 무역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6년, 김영삼 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켰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이제 바다는 단순한 물류와 산업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양 통상 질서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경제의 뒷줄인 바다의 안전과 주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가 바다를 함께 누리고, 바다에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 든든한 토대가 바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우리 해운·항만의 저력”이라며 “정부는 해운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해운 공

급망 회복에 속도를 내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해운 서비스 산업도 폭넓게 육성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기초체력을 든든하게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선원 양성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잇고, 평화의 길을 열고, 공동 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

하겠다”며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고,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은 특정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 대한민국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해양강국의 비전을 일지러와 지역의 활력으로 직결시키는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은 세계 최고의 해

양 거점으로 도약할 지정학적 잠재력과 역량을 품고 있다”며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거대한 관문,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종합 산업의 거점,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든든한 심장, 동남권의 독보적인 역량이 바다와 함께 하나로 연결될 때 ‘남부 해양수도권’의 가치는 활짝 꽃피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압도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항만, 공항, 철도,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고,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했다.

바다의 날은 국민에게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李 정부는 라이브 정부가 트레이드마크”

인터뷰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출범 1년... 공개·소통 중심 국정운영
2기 키워드, 구조적 변화 통한 대전환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는 라이브 정부입니다. 라이브, 생방송, 생중계, 날 것의 공개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6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메트로경제신문> 등 내외신 20개 언론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밝힌 ‘1년 간 가장 특징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이 수석은 “처음 (대통령실에) 들어왔을 때 KTV 영상을 공개했다. 원래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이라며 “지금 촬영하는 모든 것들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특히 소규모 매체도 쓸 수 있게 무료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투진 것은 양방향 브리핑이었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공개’의 정점은 국무회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무회의는 참석자들의 입장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 및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 초반 일부부터 KTV 등으로 실시간 방송됐다. 지금은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 정도를 제외하고는 국무회의의 전 과정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는 4시간 45분 내내 생중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26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메트로경제신문> 등 내외신 20개사와 가진 공동인터뷰를 하는 모습. /뉴스핌·이투데이

지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곳간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문을 열어 놓고 봐야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민들이 그 공간을 보면서 평가도 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제는 열어놓고 행정하고, 열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트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은 (SNS 활용에) 굉장히 능하고, 리더로서 장점을 갖고 계신다”며 “잠모 입장에서 그 장점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줄여나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

지는 대부분 간결하고 분명하며, 용이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국무위원들이나 참모들이 불분명한 의사 표현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SNS나 인터뷰를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며 해설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분명하고 간결하고 평이하게 설명해내는 ‘커뮤니케이터 리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여지를 남기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쉽지만, 의제로 꺼내기 위해 의견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이 혐오·차별에 관련해 언급할 때도 “논의를 하자”고 했었고, 축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던 사례를 꼽았다. 최근 들어서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메시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 수석의 평가다.

이 수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장 전하고 싶은 정부의 메시지에 대해 “앞으로는 국민들이 ‘체상이 좀 더 나아졌어’, ‘내 삶이 좀 더 좋아졌어’라고 확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2기가 시작될 텐데, 그 2기는 ‘대전환’으로 (기조를) 잡았다”며 “조금씩 발전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전환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기의 시작은 대전환이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진보 경남지사 후보 단일화 성사

전희영 사퇴... 김경수로 합의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사전투표일을 이틀 남겨놓은 27일 김경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경수·전희영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후보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단일화 협상을 이끌어온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이병하 상임공동대표, 김준형 집행위원장이 자리했다.

사전투표가 당장 2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을 고려해 여론조사 없이 전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역단위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단일화의 첫 사례다.

두 후보는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매개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전희영 후보는 “우리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김경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하며,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우리는 내란의 비극을 낳은 낡은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경남도민의 직접적 정치 참여와 연합정치를 통해 민주진보적 도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내란 청산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 준 전희영 후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사퇴 후 김경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공동선거운동에 나선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과 함께 공동 정책협약을 했다. 선언적·형식적 단일화를 넘



27일 오전 경남 하동군을 찾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어 공공의료 강화, 산업전환·노동권 보장, 농업업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보장, 기후정책 추진 등 경남 미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양측이 설명했다.

이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경남 시민사회는 ‘새로운 경남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양측 공동 협약을 뒷받침한다. 전희영 후보의 사퇴로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김경수 후보와 박원수 국민의힘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진다.

김경수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은 “이번 단일화를 통해 김 후보는 합리적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모두 아우르는 명실공히 경남 대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며 경남 대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김경수·전희영 후보 단일화 의미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중도보수 김상권 전 교육감 후보부터 최구식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전 도의원들, 전직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들, 오늘 진보당 전희영 후보까지 합리적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통합선대위를 구성하게 됐다”며 “경남 대통합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